

생각의 나눔이 이론, 표현, 인간, 추리

racolto

장부기

l'ordre des formes et des compositions dans  
le plusieurs idées

par

g n r i  
e e  
m

배우미도 뜻, 빈도와 함께 나누 생각들로 이론, 길과 일가를 추려 펼치기

내가 가르치며 지니 뜻과 배우미도이나 빈도의 뜻이 서로 어울려 드러난 민중들은  
새로운 길이나 보게들로 나타날 것이다

//////

4349 . . . 가을 . 미 . . . .

저 배우 미드 . 스스 안리 .  
마리하기

배우미드는, 이곳에, 여덟줄, 안팎으로, 스스르르, 안리기  
바라다  
기스기만이, 아니라, 보이는, 틈에, 먼이, 들어나면, 좋다  
스스르르의, 이야기들, 눈으로, 들려주는, 건이다

/  
제다음이, 들어나야, 한다  
//  
바르게, 써야, 한다  
///  
같은, 많은, 되풀이, 하지않는, 건이, 좋다  
////

짧은, 이야기로, 스스르르, 후린, 건이다



박박이: 김대수

과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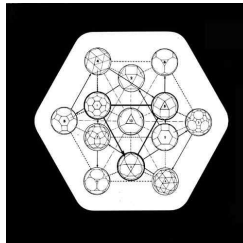
1212 presenter  
-1  
0

4349 . . . 가을 . 미 . . . .  
여러년전 . 마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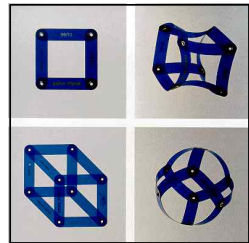
참  
이수

외구수

바른 세모길, 네모, 이어붙이면 . . . 바른 네모닐길  
바른 네모길, 여섯모, 이어, 붙이면 . . . 바른 여섯닐길  
바른 세모길, 여덟모, 이어붙이면 . . . 바른 여덟닐길  
바른 다섯모길, 열모, 이어, 붙이면 . . . 바른 열닐길  
바른 세모길, 스물모, 이어, 붙이면 . . . 바른 스물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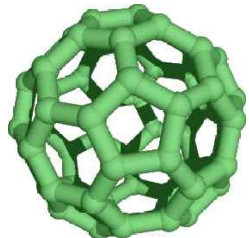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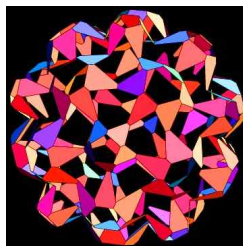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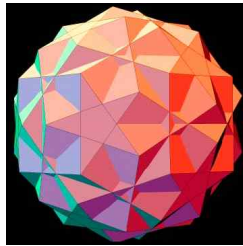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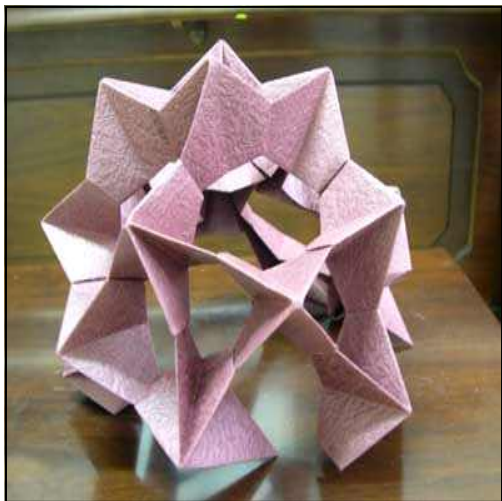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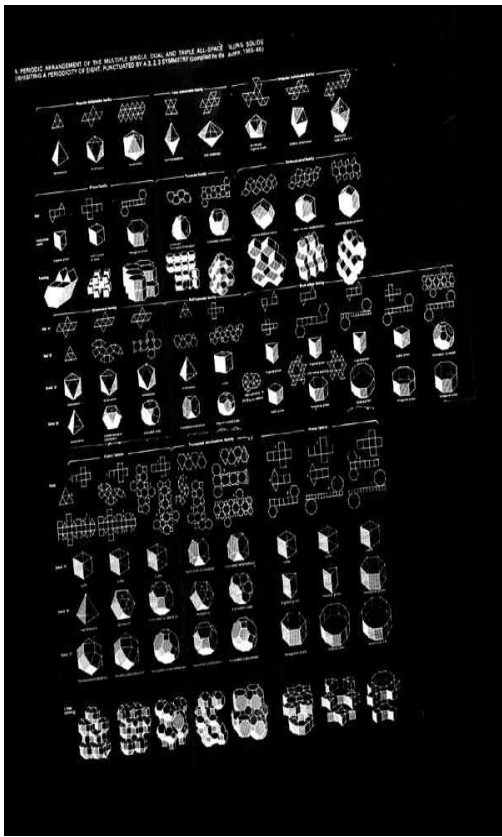
여러 닐 길들



이런시, 형태라 . . .

아래는 이곳 저곳에서 배우미드가 찾아온 것들





강진영



손정민



...  
...  
...

공팡이, 피, 주먹밥

...  
...  
...

기리이이이이  
-1  
0



4349 . . . 가을 . . .

만은, 너에, 그 리기  
진, 그, 그,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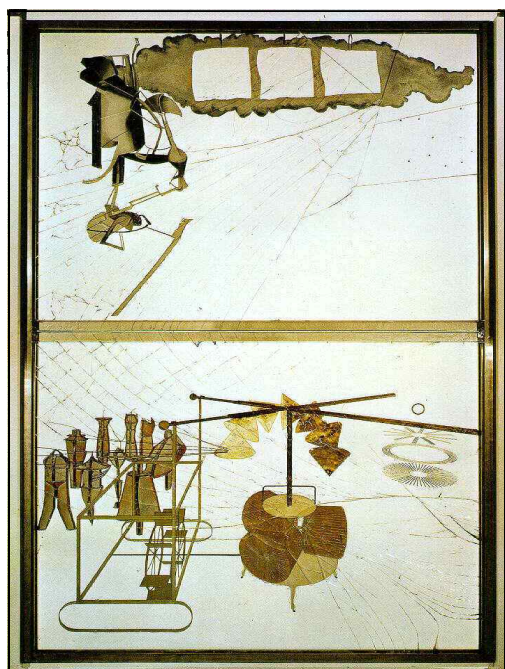
우리의, 앤, 경 비들은, 양은, 종이, 안쪽만이, 아니라,  
뒤쪽 에도, 바탕이나, 밑 경을, 칠 하기도, 하엿다

쇼 에서, 우려나와, 경이, 되기도, 하는, 건이다



문두서의, 스승경, 1668 - 1715

두안 피, 그, 큰, 유려, 닐에, 안뒤를, 함께, 볼, 수, 있  
는, 경을, 경한다  
때와, 곳의, 평평한, 닐, 하나에, 함께, 있는, 민질이  
다



화양표. 괴의, 사내들이, 빌거번간, 세아서 1915년경

4349 . . . 각을 . 04 . . .

간은 . 0 . 아이 . 1 라기

여러가지 자를 만든다

간은자

간은자

간은줄자

01. 줄을 이어 놓음

간은간 간은간 가량에 이어 끈는다

무지개줄을 골대로 하고 이어 끈는다

간은 줄을 골대로 하고 이어 끈는다

02. 널을 이어 본다

골대 꼬지를 널 안에 달리 하여 이어 끈기

일뿔칠하기

03. 많은 널에 써 걸림 이루기

많은 널과 바탕걸림 인기 찾아보기

널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음

04. 걸림에 따라 만든 걸음 무늬

이어지는 무늬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걸음 만들기



원. 재봉이, 새긴,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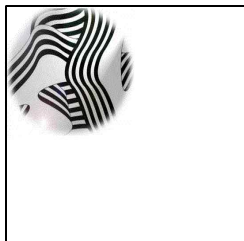
7121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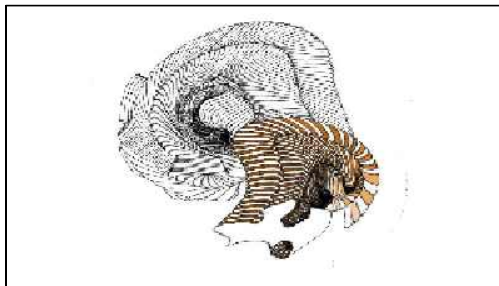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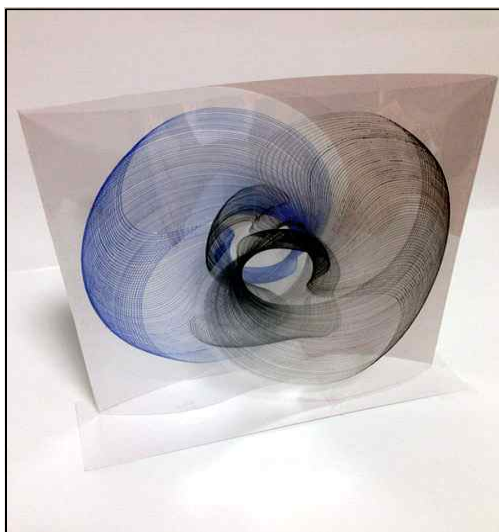
백예수



김홍연



홍승우



진예승



다비드, 부켄

기리  
- 1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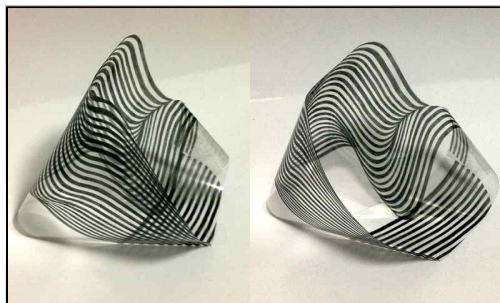
4348 . . . 가을 . 05 . . .

이 . 트 . 이 . 아 . 가  
 . 트 . 이 . 아 . 가

앞과 뒤가 인고 가운데도 인는 띠



장준원



전예승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매와 굵을 구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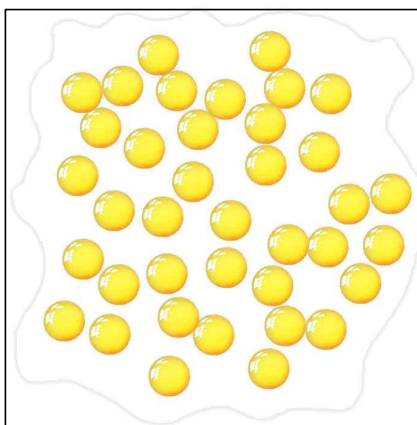
기리리  
 - 1  
 0

4348 . . . 가을 . 06 . . .

이 . 트 . 이 . 아 . 가  
 . 트 . 이 . 아 . 가 ???

차림 . 만  
 차림 . 만

이 . 건 . 도 . 헤 . 아 . 려 . 가 . 놓 . 걸 . 이 . 니 . . .  
 쥘 . 겁 . 게 . 만 . 들 . 기 . 바 . 람 . 다



매 . 주 . 리 . 알 . 들 . 만 . 접 . 시 . 에 . 마 . 려 . 에 .  
 올 . 린 . 이 : 오후 4333기



신 . 호 . 동 : 금 . 부 . 리 . 위 . 애 . 만 . 드 . 송 .  
 올 . 린 . 이 : 오전 4343기

기리리  
 - 1  
 0

뒤재해 배우미드에게 가렛들

4349 ... 봉 ... 미 ...

막지. 만드느. 막느. 만드느  
기. 만드느. 만드느. 만드느

기. 뉘보에. 라느. 민질비가. 만드느. 툴이. 있느데

기. 툴. 있느. 막을 거러를. 넣어. 똥을. 만드느. 내느.  
걸이다



만드느. 때: 4333

기. 툴. 만이. 아니라. 걸이. 만드느. 내느. 똥도.  
민질이. 되느. 생이다

만다. 버린. 스테기로. 거름만. 만드느. 걸이. 아니라. 또다  
르. 민을. 이룰. 수. 있다



만드느. 때: 4322

미로라. 티시. 라느. 빛. 빛. 바. 버려진. 스테기로. 빛  
박. 개를. 만드느. 찢은. 걸들로  
똥. 피도. 가운. 집에서. 잔. 찢을. 얼어. 쭈어다

거러만. 걸들. 생각해. 보고. 기. 연장만. 민진. 꿀을. 지니  
느. 걸이. 아니라.  
걸과. 함께. 만드느. 내. 걸도. 새. 민질이. 될. 수.  
있도. 줄. 거이. 해. 보기. 바. 라. 다

기. 리  
- 1  
0

4346. 해. 봉

예. 진  
어. 들. 짜. 개

소. 마  
무. 니. 가. 찢. 이. 느. 신

슬. 비  
굴. 러. 찢. 느. 통. 기. 마. 대  
+  
던. 불. 이. 기

지. 신  
일. 마. 추. 느. 툴

영. 빈  
운. 지. 기. 보. 이. 느. 방. 아 + 소. 마. 툴

소. 정  
비. 부. 방. 운. 돌. 리. 느. 툴 } 양. 당. 의. 분. 물

가. 원  
바. 랑. 나. 느. 빛. 가. 루. 튀. 느. 쉼 + 바. 랑



동준

꺾는. 팔 } 소리. 만대

주호

꺾는. 틈 } 오종. 사는. 틈

지후

봉... 그영 } 사내. 툼로. 만드. 달린

수양

꺾는. 틈 ... 지진. 개. 꾸미기

슬기

꺾는. 바퀴 ... 새알

경현

꺾는. 틈 ... 머리. 주무르개

효주

꺾로. 가퀴네기 ... 말장난

용강

소리. 킬링으로. 만드는. 길

애진

꺾는. 못. 길이

창우

못. 바퀴는. 틈. 자지 ...

4345 애봉

꺾의

카디오. 만드기

현진

신. 찢개

정윤

촉농. 뿌리개. 촉농. 민트

현택

빛갈. 뿌리개

근아

몽에. 달린. 부드과. 옷. 경

예진

되비치. 경

은지

그외. 만드기

하나

바늘. 거멍. 빛. 바깥개

희신

우산. 옆. 만드어. 꺾기

미정

굴러. 무늬. 찢개

원기

유리알로. 바퀴. 보는. 틈

판제

전자식. 낫시

진솔

꺾는. 오랑. 틈

혜민

빛. 바깥개로

준모  
매릉. 당아뉘는. 민릉

민지  
거려개

지은  
여러가지. 길들로. 연필깎개

수지  
손통칠개

은지  
여러가지. 엮는. 툴

지수  
건는 툴

양지  
여러가지. 그림을. 함께. 보는. 툴

유경  
뭉감짜개

지영  
곳시들로. 마다는. 민질

민아  
요요

윤화  
밖밖개. 유리알. 채. 만들기

지수  
장진기

예술  
필살

푸름  
방아

4343해봉

해운  
돌려려개

희창  
작은. 총으로

새희  
겨려늘려개

다혜  
모래고려개

지원  
떠에 겨개

다비  
모래늘려개

지희  
작은 연장 못은

다혜  
겨울 팽이

서현  
싸개

민년  
바탕개비

예징  
돌보기

의지  
바탕개비

4349 ... 붓 ... 02 ...

실화  
눈소잉

느릿느릿, 휘어진, 너, 만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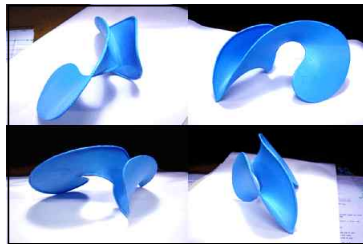
수빈  
누른개



화준

이미애

아린  
별길 만들개



강영희

심아  
눈 뿌리개



강동영

스강

반작품, 몽품, 노란귀중, 기비선, 칠... 등등

기밖, 다른, 스강

비누뿜

칠

신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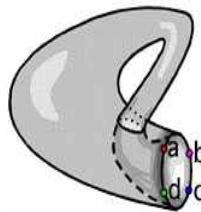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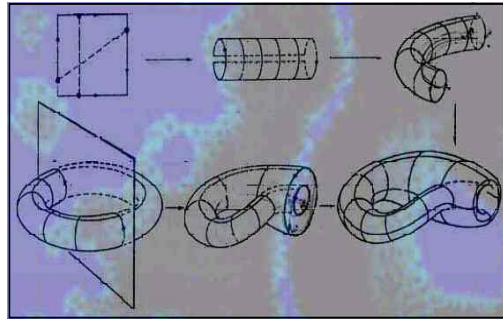
양은 프라스틱  
천  
과  
알미늄  
구리  
쇠

4349 ... 붓 ... 03 ...

클라이, 빛, 색, 소리



은과 오이로 만든 이; 김유진



클라이, 유리, 구름, 바탕연, 생각한, 길과, 일개,  
그 유리구름은 뽕비우스 띠를 덩어리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을까?  
뽕비우스 띠는 기다란 띠 한줄을 뒤로 돌려 두 줄을  
이룬 것이다.

이 띠는 앞과 뒤에서 서로 다른 쪽으로 지나간  
줄이 나중에 같은 곳에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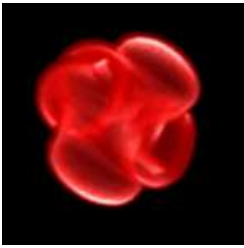
앞과 뒤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띠로 이루어져  
있다.

2차원, 또는 3차원 길은 넘어선 여러차원의  
길; 2차원적 띠 안팎으로 3차원적  
공간이 스며있다.

뽕비우스 띠에서는  
이쪽 저쪽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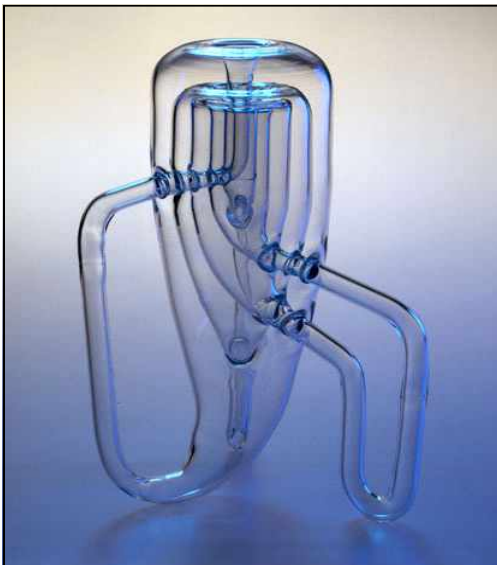
뽕비우스 띠는 가운데가 없다.

1121  
-1  
0



Images of 4D-like knotted spheres including depiction of 4D occlusion in the 3D projection; this is similar to the self-occlusions of a knotted rope in 3D projected to a 2D image. The first image is a time-consuming volume rendering, while its equivalent below can be manipulated using real-time methods. (A. Crass, A. Hanson, and P. Heng, Indiana University.)

클라인 주동이는 2  
 뱀비우스 퍼 처럼 휘어진 하나의 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당길 수 있는 곳도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과 밖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안과 밖 그 사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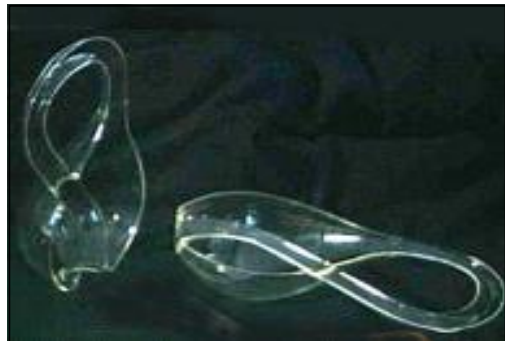
This is one of a series of glass Klein bottles made by Alan Bennett in Bedford, United Kingdom for the Science Museum, London. It consists of three Klein bottles, one inside another. A Klein bottle is a surface which has no edges, no outside or inside and cannot properly be constructed in three dimensions. In the series Alan Bennett made Klein bottles analogous to Mobius strips with odd numbers of twists greater than one. Image number: 10314758 Credit: Science Museum/Science & Society Picture Library

“ 이렇게 자원 방한 변칙을 하는 기하학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가 의문이 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공간인식 또는 우주관은 <중심이  
 없는 무한한 세계>가 되어 있다.  
 무한 세계에서는 자원이 늘리고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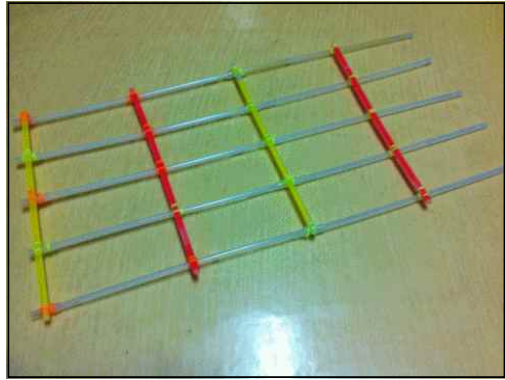
.....

중심이 없는 세계에서는 모든 부분이 중심일 수  
 있다.”

김용운) 카타스트로피 이론 일문에서...



여러가지 다르게 밀경을 그려보기 바람.  
 그려 뒤 번개 실에도 경들을 띄워볼 것.



기용강

펜로세 + 118켈 + 튜비X 렌딩 >>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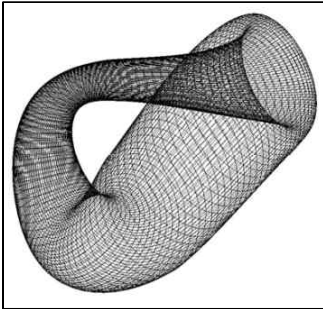
밖.

달까지. 넘어볼. 수. 있다...

기리리in...

-1

0



1. 안에...

봉.

뭉.

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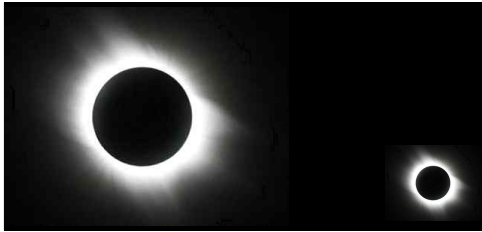
외가루.

호 가루.

4349 ... 붓 ... 04 ...

연장을, 새로 이 해보 자

버려진 종이( бумага весточки · 新聞紙 news paper ) . 그 크기를, 다르게, 동등, 말아, 대롱, 두개를, 만들어, 눈에, 맞대어, 봤을, 본다



항상, 새롭게, 바뀌는, 바깥을, 보는, 연장을, 만든, 셈이다

기리 4330 . 09 . 20 . 18 : 41  
-1  
0

말아준이 ; 김선주

쓰고, 읽는, 연장을, 새로이, 그려보거나, 만들어, 본다

이는, 일할, 때, 바른, 몸가짐을, 지니게, 할, 것이다  
이는, 연장의, 쓰임새를, 높여, 줄, 것이다



살바도 달리...  
'나에게, 가장, 좋은, 연장이, 주어진다'

이미, 만들어져, 나온, 연장을, 스스로, 손에, 맞췄, 고쳐  
다

서로, 다른, 곳에, 쓰이는, 연장, 여러가지로, 하나로, 뭉쳐  
. 본다

흔히, 볼, 수, 있는, 길이나, 어려운,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연장을, 생각해, 본다  
연장의, 강을, 다른, 길로, 바꿔, 본다

뿌리

가지

이슬

열매

드들 어떻게 쓰이나

잡기

끼기

길기

박기

못기

익기

밀기

붙기

치기

굳기

임

굳히기

굴리기

누르기

당기기

비틀기

돌리기

나누기

붙이기

늘이기

조르기

줄이기

자라기  
바뀌기  
돌리기

한중로 만들기  
한파으로 만들기

두가지로 인기  
여러가지로 인기

두가지로 싹기  
여러가지로 싹기

기리  
-1  
0

아래는 ...

<http://cc.hangwon.ac.kr/~msub/lifeword>  
에서 따옴

나무다루기  
까대기 ; 굵은 날에도 그 안에서 일할 수 있게  
지은 집,  
상오 ; 건물을 들어서 지은 헌집, 일이 끝나면  
뜯어낸다.

도개벌 ; 베어낸 원목에서 가지를 치고 대충 도개로  
다듬은 재목.  
밀동 ; 장모의 뿌리쪼,  
길동(운동) ; 장모의 길쪼.

군두쇠 ; 굵은 나무를 옮길 때 쓰는 반죽을 걸기  
위해 애박은 큰 굵은 쇠고리.  
깎쇠 ; 깎아야 할 나무를 모양에 고정시키기 위해  
걸쳐박은 ㄴ자형 쇠.

말 ; 나무를 마를질하여 미죽을 최고 통질을 할

때 반쳐놓은 나무.

규規 ; 경쇠, 걸음쇠, 장선, 컴퍼스, 원을  
그리는 도구.

구矩 ; 굵자, 직각을 보는 도구.

준準 ; (대링), 수평을 재는 도구.

승繩 ; 미줄, 직신을 잇는 도구.

굵자 ; 직각되게 ㄴ자형으로 만든 자.

흘린자 ; 자 두 개를 연결하여 임의의 각도로 굵을  
구게 된 자.

춘못(턱춘못) ; 나무 면에 평행선을 구기 위한  
도구.

가늌추(다링추, 평형추) ; 줄을 달아 내려뜨려서  
수직을 보는 문지한 물체.

멧통 ; 멧뭉을 갈아보고 가늌다라 끈으로 거길  
거쳐나오게 해 굵은 선을 인도로 만든 도구.

멧칼 ; 멧을 찢어서 부음을 구게 한 칼.

자귀 ; 나무를 찢어서 깎은 연장으로 도끼날이  
새로운데 비해 가호날로 된 것.

손자귀

종자귀

대자귀(선자귀)

까귀 ; 손자귀와 같은 소용인데 도끼처럼 쇠로  
만들고 나무자귀를 해박는다.

오까귀 ; 날을 외하게 내 앞쪽으로 들이갠게  
된 까귀.

우버칼 ; 날을 외려서 까귀로 찢은 나막신의 안  
부분을 우버내는 칼.

통 ; 일정한 강도로 날을 내서 나무를 자르는  
연장.

내림통

동가리통

긴치통

대통 ; 통이 마주 쓸 수 있는 큰 통.

중통



소통 ; 줄로 동이고 탕개뿔이라는 나무를 깨워  
 돌려서 단단히 고정한 통.  
 새통 ; 아주 정밀하게 굵기 위해 통날을 특별히  
 잘게 한 통.  
 등대기통 ; 거도의 통몽을 보완하기 위해 등 부분에  
 등외를 대 통.  
 쇠통 ; 등 조연 활동같이 휘어 만든 등외를  
 걸쳐서 통몽을 보완하고 쇠를 굵는 통.  
 실통 ; 실같이 가는 몽을 메운 통, 투각으로  
 씌어낼 때 사용.  
 봉어통 ; 특별히 통몽이 넓어 봉어처럼 생긴  
 통.  
 양날통  
 접통 ;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접어서 통몽을  
 자루에 끼우게 된 통.  
 둥통 ; 통양이 짧고 배가 둥글어 널빤지에 몽을  
 파기 편리하게 한 통.

줄 ; 통을 많이 써서 이가 닳으면 아주 강한 쇠로  
 만든 줄을 써서 날을 세운다.  
 한 ; 나무만을 갈아내는데 쓰는 연장.

양판 ; 대패질 거리를 반려놓는 판판하고 긴 나무.  
 단양판 ; 올려놓은 물건이 미끄러져 물러나지  
 않도록 단봉인 나무 요리.  
 대패 ; 나무질에 날을 만들어 굵아 일정한  
 두께로 나무를 깎아내는 기구.  
 대패손 ; 대패질할 때 밀어내기 편하게 날  
 뒤쪽에 가로 대 손잡이.  
 후이기대패 ; 면은 고르지 않아도 일정한 두께로  
 깎아내기 좋게 대패질이 시늬만 있는 대패.  
 장대패 ; 막대패로 밀어내 면을 더욱 반박하게  
 고르기 위해 짙은 길게 한 대패.  
 대패질 고쳐기대패 ; 단단한 나무로 된 대패질의  
 바닷을 고르게 깎기 위해 날을 굵추세운 대패.  
 뒤질대패(뒤대패, 등밀이) ; 우뚝한 바닷을  
 깎아내도록 대패질 바닷 앞뒤를 둥글게 한 대패.

둥근 대패(배둥근 대패, 배대패) ; 옆한 대를  
 둥글게하게 밀어내도록 대패날 길 이 반달형으로 된  
 대패.  
 모귀(모끼)대패 ; 이미 대패질한 것뿔 귀퉁이를  
 장식하기 위해 직각에 맞게 모귀를 치는 대패.  
 배밀이대패 ; 가운데 줄이 조금 넓은 새 줄을  
 내기 위해 별도로 만든 대패.  
 살미리대패 ; 무살 등에 장식하기 위한 선을  
 넣어 미는 대패.  
 표주박대패 ; 단면이 표주박처럼 된 몽을 내게  
 된 대패.  
 변탕 ; 나무의 한 쪽 부분을 한 단 낮게  
 깎아내기 위해 날을 모서리로 모아놓은 대패.  
 개탕 ; 굵밀이라고 하여 장지나 빈지 같은 것을  
 깨우기 위한 몽을 파는 대패.  
 배밀이 ; 따로따로 깎은 무살을 틀에 넣어  
 맞추었을 때 종이 바라는 면에 조금씩 생기는  
 차이를 깎아서 고르게 하는  
 아주 조그 마고 손 안에 드는 대패.  
 연승이 ; 개탕으로 파낸 몽의 안 양 면을 고르게  
 깎아내기 위해 변탕을 따로 한 것처럼 연승을  
 깎는 대패.

길 ; 한 쪽 길에 날을 세운 반대쪽 머리를  
 망치로 두드리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 깎아내도록 한  
 연장.  
 칼망이길 ; 자루를 나무로 하고 자루뿔에 쇠를  
 매워 만든 길.  
 미는길(굵은길) ; 머리를 두드리지 않고 밀어서  
 깎는 길.  
 길망치 ; 길질을 할 때 머리를 두드리는 망치.  
 장도리(소도리) ; 쇠로 만든 망치.  
 못봉이(배척) ; 굵고 큰 못을 뺄는데 쓰는 쇠로  
 된 연장.  
 노루발장도리 ; 장도리의 한쪽이 노루발 못봉이로 된  
 장도리.

귀명내는 연모

송곡 ; 물건을 뚫을 때 쓰는 연모.  
 중심송곡 ; 평평한 송곡 길은 세 개의 날로  
 나누어 가운데 길을 길게 한 송곡.  
 반당송곡(도래송곡) ; 비벼서 돌리면 원형의  
 귀명이 나게 된 송곡.  
 바긱 ; 자루가 달리고 때려서 바게 된 송곡.  
 타래송곡 ; 나선형으로 된 송곡.  
 철통 ; 당백대의 마디귀명을 뚫는 데 쓰이는 긴  
 송곡.  
 구화송곡 ; 나사못 들어갈 자리의 애벌을 뚫는  
 송곡.  
 통송곡 ; 나선형의 끈을 돌려 작은 링으로 귀명을  
 뚫게 한 송곡.

목

목 ; 나무, 대, 구리, 철로 된 길이 뾰족하여  
 어떤 물건에 박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  
 왜목 ; 지그 흔히 쓰는 공장에서 대략으로 나오는  
 목.  
 목집 ; 이미 박아놓은 목을 더 깊이 박기 위해  
 목에 대고 치는 길이 뚫은 쇠붙이.  
 보라 ; 목집을 크게 한 것.  
 나사못 ; 돌려 박아서 고정하게 된 목.  
 괴리목 ; 목가 괴리로 되어있는 목.  
 박철(교철, 기밀목) ; 목을 박기가 어려운 곳에  
 걸쳐대고 양 끝을 목질에 박는 쇠붙이.  
 구화목(광두집) ; 문짝의 배면 해박은 위에  
 장식으로 덧박는 무늬가 있는 목.  
 양집 ; 손으로 눌러 깎아서 고정하게 된 넓적하고  
 축이 짧은 목.  
 은집 ; 나무조음 막붙이든지 할 때 두 조 사이에  
 길쭉히 드러나지 않게 해박는 목.  
 징 ; 신에 가죽창을 대고 그 위에 튀어나오게 박는  
 쇠목.

돌과 쇠를 다루는 연모

징 ; 손으로 쥐어서 대고 쇠망치로 쳐서 돌을 깨는

연모.

날망치 ; 장으로 다듬은 돌 표면을 고르기 위해  
 두드리는 날을 새운 망치.  
 벼돌망치 ; 벼돌 중간을 깨는 소용으로 한쪽에  
 뚫은 날이 달린 망치.  
 몽동이 ; 동그런 쇠보판에 자루를 애착할 때.  
 매 ; 튼튼히 큰 망치  
 쇠매 ; 쇠로 만든 매.  
 띠매 ; 띠를 치는 매.

모루 ; 대장간에서 붓을 닦고 쇠붙이를 쳐서 늘릴  
 때 반쳐놓는 쇠바탕.

징계 ; 가위처럼 만들어 쇠붙이를 징도로 한  
 연모.

푼무 ; 쇠붙이를 닦고 화덕에 공기를 불어넣는  
 기구.

당꺼 ; 날을 강하게 하기 위해 불에 당근  
 연장을 불에 당가 식히는 과정.

물건을 쓰는 연모, 약방기구

잔두 ; 마소에게 먹일 소분 거리를 쓰는 기구.  
 약도(약잔두) ; 약재를 쓰는 데 쓰는 손잔두  
 연 ; 약재를 갈아 내는 연모.

맛자(마자, 마자기) ; 재료를 빵아 가루를 내거나  
 연개어 식기 위해 쓰는 사기로 만든 구과 공이.

약봉지 ; 약을 철약으로 지어낼 때 쓰는 종이.

약탕관(약투구리) ; 약을 달이는 데 쓰는 자루가  
 달린 그릇.

약보자기 ; 달여서 잦아든 약을 배보자기로 싸서  
 찌는 천.

맛대기 ; 약보자기를 대고 찌는 둥근 작은 나무.



다미 노. 테가... 노운부리, 연장들

4349 ... 가을 ... 07 .

다시 재. 마음. 인. 것. 과. 어. 개. ...  
재. 한. 가. 내. 기.  
. 주. 2.

마  
으  
대  
로

하라

그러나

누군 ...

무언이든. 몽과. 마음이. 조그 이라도. 다칠. 수. 있. 는. 생. 각  
이. 라. 면. 안. 되. 다

생. 분. 수. 을. 만. 들. 어. 도. 좋. 고 ...

모. 나. 리. 자. 를. 받. 가. 란. 으. 로. 그. 러. 되. 워. 도. 좋. 고 ...

술. 밋. 을. 거. 리. 를. 만. 들. 어. 도. 좋. 고 ...

그러나

누군 ...

무언이든. 몽과. 마음이. 조그 이라도. 다칠. 수. 있. 는. 생. 각  
이. 라. 면. 안. 되. 다

엔 ... 보기

/ .

어. 는. 지. 은. 그. 령. 비. 가. 연. 필. 지. 우. 개. 평. 을. 모. 아. 기. 을. 써  
놓. 았. 다 ... Forger (인. 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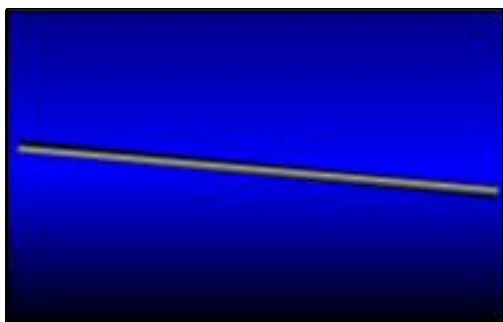
// .

먼. 질. 비. 조. 심. 문. 은. 가. 는. 곳. 수. 들. 로. 강. 아. 지. 질. 도. 만. 들. 고.  
길. 상. 도. 만. 들. 었. 다



4349 ... 기음 ... 08 .

다시 오 자아아 안느 어개  
재기 만드기



김동영이 4334 매에 썬 길



김동영이 4334 매에 썬 길



이성용이 4334 매에 만들이 의문 길



이원석이 4334 매에 만든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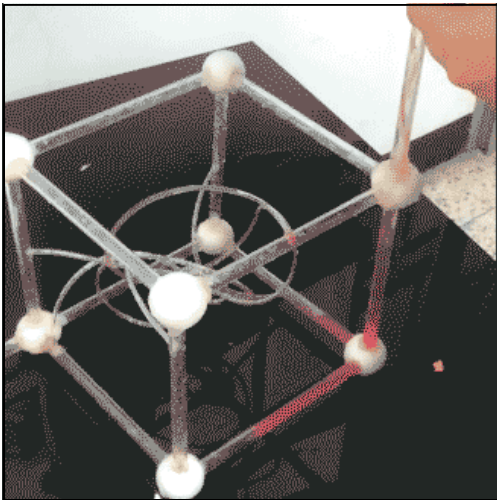
파란, 뽕주머니, 일곱통과, 간음, 스, 부리



살과, 길...  
4348, 매에, 브린 커만+ 그그라'올+ 마+테리카+ 사자보  
.이, 함께, 만드



정음저가, 만드, 움직이지 않는, 나비



이것의가, 만드, 모형

기리 ...  
- 1  
0

4349 ... 가 ... 09 .

어린 기 지킴기  
~. ~.

땅힘에 따라 떨어질 때  
쉽게 개어지는 달걀 껍, 유리잔을  
무거운 힘으로 부터 지킬 수 있는 일개와 길이를  
생각하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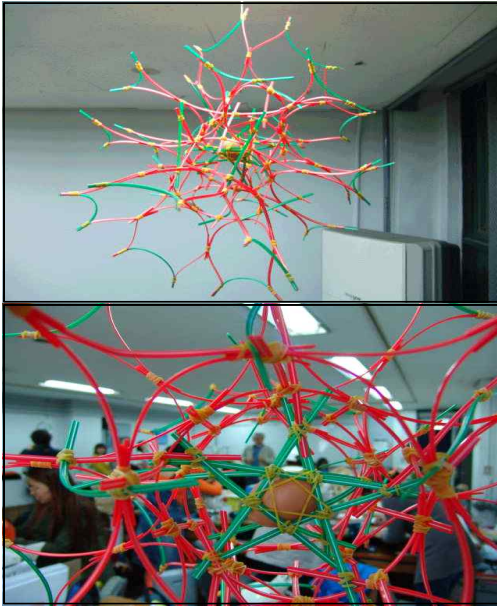
스강: 발대, 이치계, 전가량, 실, 고무줄. 종이  
소뿔을 잘라두었다면, 스강을 스스로 굴러도 됨.  
막이고 아름답게 만들면 종이나 스강의 크거나  
손쉬운 드러내는 일인 스스로 줄여볼 것

만든 다음 30 미터 위에서 돌바닥으로 떨어뜨림

해킹: 지킴 - 3할 아름답음 - 3할  
참가본 - 2할 내마음 - 2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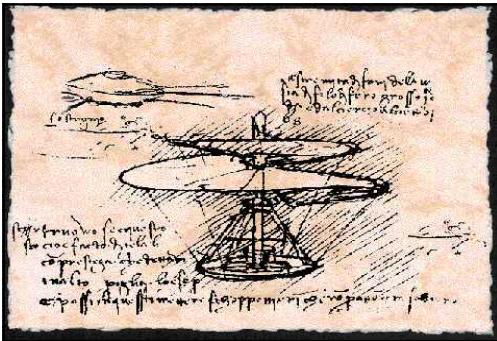


달걀과 일개를 풍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크기는 30 x 30 x 30 센티미터 안팎이어야 한다.  
살은 달걀이나 날 달걀을 쓸 수 있다.  
날 달걀이 부딪혀 깨어질 때 보게되지 않을 수  
있으나,  
날 달걀 무게처럼 하려면 깻질 솥에 뭉감이나  
칠 또는 돌가루나 흙뭇을 넣는다.  
유리잔이나 달걀깻질이 어떠한 조에서 보아도 기할  
넓게 보여야 한다.  
또 같이 여러개를 만든다면 빨리 짜 맞추 수 있는  
것이 좋다.



위, 천, 10, 에, 43338, 배움터... 알, 일개는, 위영우가, 만들어  
 띠운, 걸

레와날도, 다, 비치, 는, ...  
 스스로, 생각은, 종이애, 올길, 때, ... 판박이, 바탕경  
 처림, 거꾸로, 쉼, 때가, 막았다, ...  
 남들이, 잘, 알아채지, 못하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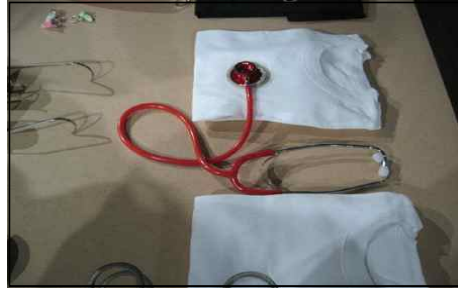
그래서  
 들리, 보았다, ...

기리Banda da Vinci...  
 - 1  
 0

4349 ... 가을 ... 10 .

마음, 이기 ... 다른 개, 또, 한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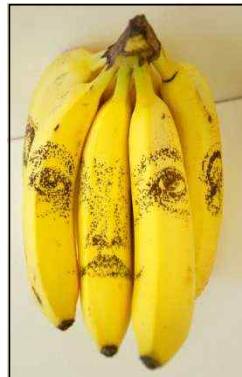
이미, 읽는, 걸을, 다른, 씩새로, 만들어, 보자



보기를, 들면, 가슴에, 대고있는, 붉은, 청진기가, 못걸  
 이나, 귀고리, 처림, 노리개가, 되고 ... 유지우

기리  
 - 1  
 0

나라질의, 그림비, 토니코, 레모스, 히타드, 는, 바나나에,  
 바늘로, 사랑, 일군을, 그려는, 데  
 잘, 보이지, 않던, 일군이, 하루가, 지나니, 짙은, 아씨,  
 일군로, 드러나고  
 사슴, 쯤, 지나니, 아주머니, 일군로, 보이고  
 이래, 쯤, 지나니, 할머니로, 보인다  
 때가, 지나수랴, 늙어, 한, 보령이, 되며, 제, 삼을, 다,  
 하고, 사라져, 남을, 테지





경비, 사령. 스텔. 빛. 의. 탈 ...  
빛. 빛. 이. | 나. 게. 모. 랑.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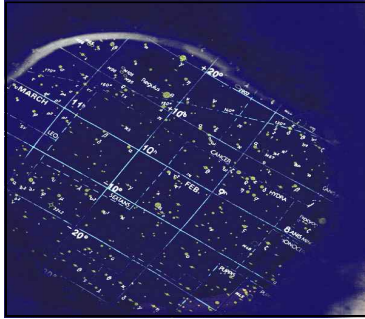
기리  
- 1  
0

우. 르. 스. 이. 니. 라. 하. 밀



스 기로운 눈

아무도...  
 지구... 바르게 보여줄 수 있다...  
 진짜 지구는 있다...



가짜 밤하늘...

나는 언젠가...  
 경에서, 소설집을...  
 지구의 중심... 이곳에서, 가장 무거운, 중력의, 중심점  
 옆, 잘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기리리리리...  
 -1  
 0

정과, 정을, 인는, 가장, 가까운, 선은,  
 길이나, 꽃이, 인는, 또, 다른, 제, 3, 의, 정일, 수도,  
 있다...

기리  
 -1  
 0

눈, 감각, 할, 사이, 가장, 뚜렷한, 별, 모습, 만들어,  
 본다

기리리리리...  
 -1  
 0

오 내... 그 때의... 사이비  
 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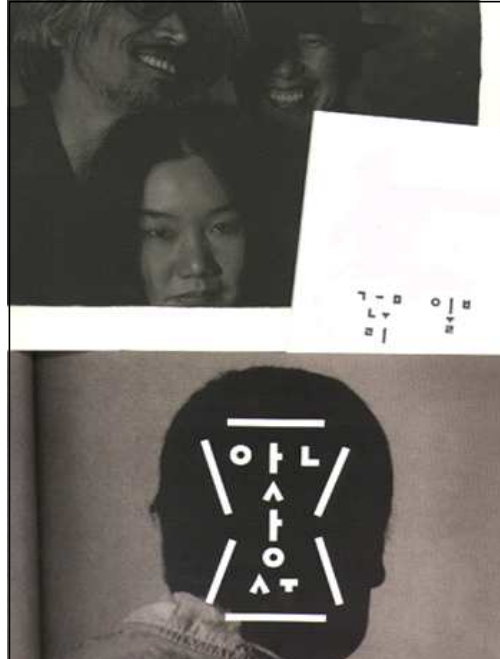
클로드 모네가 그의 집 뜰안 수련 연못 옆에  
 서 있는 희미한 사진 등이 찍혀있는 경연서를  
 아내가 사왔다.

1920년 즈음에 클레망셀이 찍은 초기 천연색  
 45밀리미터 필름 크기  
 사진 등이 한 연서에 나란히 놓여 있다.  
 말하자면, 하나의 사진기표 한 번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스테레오스코피인 것이다.

사이비 스페이스는 이미 그때에도 있었단 셈이다.

기리리리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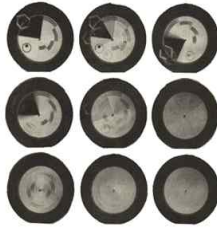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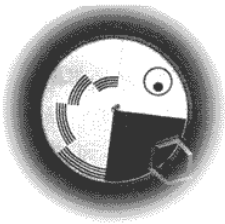
그 두 리, 이분, 안상수



편안은 안상수, 바탕 빛박이는 이재음

우<sup>기</sup>지<sup>부</sup>안<sup>리</sup>에 따<sup>기</sup>른 형<sup>부</sup>태 지<sup>리</sup>각의  
변<sup>기</sup>화

기<sup>부</sup>리<sup>리</sup>다...  
기<sup>부</sup>리



백<sup>기</sup>안 + 기<sup>부</sup>리

우<sup>기</sup>지<sup>부</sup>안<sup>리</sup>에, 따<sup>기</sup>라... 빠<sup>기</sup>르<sup>기</sup>에, 따<sup>기</sup>라... 모양<sup>기</sup>이... 달<sup>기</sup>라질.  
... 뿌<sup>기</sup>만, 아<sup>기</sup>니<sup>기</sup>라... 새<sup>기</sup>로<sup>기</sup>운... 빛<sup>기</sup>갈<sup>기</sup>이...  
... 만<sup>기</sup>들<sup>기</sup>어<sup>기</sup>지<sup>기</sup>도... 한<sup>기</sup>다...  
우<sup>기</sup>지<sup>부</sup>안<sup>리</sup>에, 따<sup>기</sup>라. 보<sup>기</sup>이지, 안<sup>기</sup>디. 기<sup>부</sup>이, 보<sup>기</sup>이<sup>기</sup>도, 하<sup>기</sup>고...  
보<sup>기</sup>이<sup>기</sup>디, 기<sup>부</sup>이, 사<sup>기</sup>라<sup>기</sup>지<sup>기</sup>도, 한<sup>기</sup>다...

기<sup>부</sup>리<sup>리</sup>Erception  
기<sup>부</sup>리  
0

기<sup>부</sup>리... 기<sup>부</sup>리...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우<sup>기</sup>지<sup>부</sup>안<sup>리</sup>에... 만<sup>기</sup>들<sup>기</sup>어<sup>기</sup>지<sup>기</sup>도... 만<sup>기</sup>들<sup>기</sup>어<sup>기</sup>지<sup>기</sup>도...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

기<sup>부</sup>리  
기<sup>부</sup>리  
기<sup>부</sup>리  
기<sup>부</sup>리

비<sup>기</sup>어<sup>기</sup>인<sup>기</sup>는 기<sup>부</sup>의 빠<sup>기</sup>르<sup>기</sup>기  
인<sup>기</sup>은 기<sup>부</sup>로 지<sup>기</sup>니 빠<sup>기</sup>르<sup>기</sup>기

기<sup>부</sup>리  
기<sup>부</sup>리  
0

건축가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왜, 리모티브, 리브...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새로이, 만든, 학교에서...

"건축가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  
트 강을, 하기로, 하였다...

오늘이, 개강, 첫날이라, 하던데, ... 가장, 어린, 학교에  
... 무인용, 돌려줄, 수, 있을까? ...  
... ..



교재,로, 읽어준, 내글, 내명... 책은이: 이대원

... ..  
... ..

몸은, 달하며, 일러, 준, 이야기와,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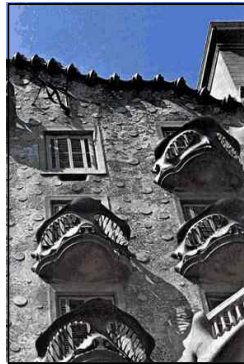
건축, 설계의, 기준이, 편편한, 바다면, 곧,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은, 옳지않다...

그러한, 기준은, 시구, 르네상스, 때, 다듬어, 놓은, 직선  
적, 조형관을, 따르, 편견적, 산물이다...



김수연의 경동교회

김수연의, 종교건축은, 벽과, 지붕의, 꺾임이, 일다...  
봉은, 벽돌로, 만든, 지붕, 경사면이나, 그, 꽃대기가, 기  
준이, 될, 수도, 있는, 보기가, 된다...



안화노 가우리 건축 모형조: 최지은

안화노, 가우리의, 건축, 설계, 기준, 면은, 거울에, 투영  
된, 곳면이다...

소실집은, 지구의, 중심, 지구에서는, 가장, 무거운, 힘, 곧,  
중력의, 중심집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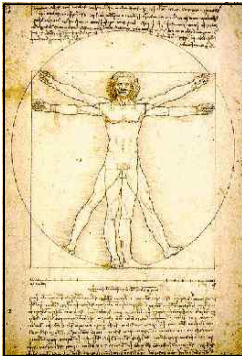
따라서, 그는, 구조학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김부리의 강의 중 촬영 장면이: 신 7777

나는, 곳만, 위에, 서있다...

최고, 예술가,,, 건축가는, 어디에, 일는가...  
내, 앞에... 내, 뒤에... 내, 위에... 내, 안에...  
일다...



레오나도 다 빈치의 인체비례도 동린이: 유안징

내, 곁, 소에, 일음, 수도, 일다...  
전어도... 내, 안에, 누워일음, 중, 알아야, 한다...

기리Architecta...  
-1  
0

일음, 보 기

일음, 덩어리와, 바르키, 그, 사이로만, 따져, 판, 건은  
움지않다...



기리Architecta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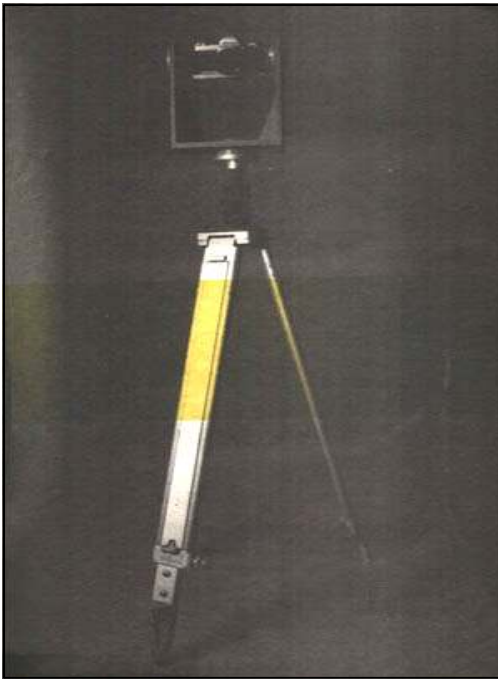
지, 보, 기 ...

에너지들, 물질, 과, 속도, 에, 관계되어진, 건으로만  
해석하는, 건은, 움지않다...

덧말 ; 여신, 해, 앞에는, 원근음, 이렇게, 씁니다  
...

이규철 ... 세발이

이규철이. 1도. 해. 앉서. 만드. 이. 세발. 반칭대는. .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크고. 어떤. 쪽으로. 유틸리티를.  
 돌리더라도...  
 보이는. 그. 가운데는... 항상. 빛바이트를. 필름. 가운데  
 놓이게. 된다...  
 빛바이트에. 당는. 그. 뿐. 마. 아니라...  
 빛바이트를. 당는. 그. 까지. 뚜렷하게. 볼. 아낼. 수. 있는.  
 걸이다...



12lipod...  
 -1  
 0

한상  
 ...

8...년전...8월.1도일...남부.학생들이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남쪽에서는...경찰들이. 강력하게. 막았다...

그. 다음. 주...홍인대. 조소과. 4학년. 개설. 강좌  
 환경조각. 강의. 천남...출신부들. 받아보니...  
 신청자. 수나. 전공. 내용. 때문에. 모두. 다. 받아들일.기  
 여의치. 않았기에...  
 나는. 판문점과. 그. 주변. 환경을. 보고. 온. 학생만이  
 내. 강의. 수강을. 받아들일.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 주. 지난. 뒤...사학년. 대표적. 학생이. 50명  
 안쪽으로. 줄어드. 출신부들. 내게. 내밀며...  
 이번. 학기. 안에. 끝. 다녀. 오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학기...내. 강의. 수강. 신청자는  
 ...일학년이든. 대학원생이든. 모두에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다녀와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 때. 여러. 반음들. 가운데. 두가지를. 소개하면:::

하나- 그. 몇주. 뒤. 도시계획. 전공하는. 한. 여학생이.  
 판문점. 구조를. 촬영하여.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한등기로. 영사하여. 내게. 설명  
 까지. 하며. 시사과점생들.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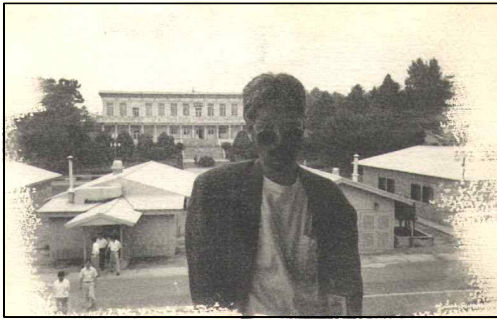
나는. 사진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았으니  
 강의시간까지. 쓰며. 볼. 필요. 없다고. 하고.  
 다른. 학생들도. 직접. 가고. 직접. 보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곤...  
 어떻게. 촬영통제. 구역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찍어왔는  
 나고. 물어...  
 "

저...면회도. 할. 겸. 애인에게. 부탁해. 안내를. 받아.  
 친귀와. 함께. 돌아다니며. 찍을. 수. 있었어요..."

둘- 또. 그. 몇주. 뒤. 근민대. 공예과. 이학년. 대표적.

학생이. 날. 찾아. 자기. 머리를. 긁으며...  
그. 에.는. 학생들.이. 다녀.오.기. 싫.지. 않.다.며. 학생들  
부.담.이. 크.다.고. 말.하.기.에. ... 나는  
"

네. 이.놈... 내가. 스승.이... 다녀와. 보.라.고. 했다...  
비.무.장.지.대.에. 다녀.왔.는. 일.을. 어.떻.다.고. 하.다.니...  
이.놈... 빌.클린.턴.도. 다녀. 오.던.데... 자.네. 이.번  
하.기. 안.에. 다녀.오.지. 못.하.다.며... / ... 자.른  
뒤.에.나. 만.나.세...."



중 ... / ... 촬영: 정은, 인화. 1994050224; 배병우

몇.년. 뒤. 인.젠.가. 그. 학생.은. 내. 앞.에.서. 먼.지.고. 뛰.어  
나. 오.음.을. 켜. 길.게. 터.뜨.려.다.  
그. 날.이. 그. 길.이. 때.문.에. 보.조. 학생.들.도. 내. 소.리와.  
그. 울.림.을. 들.을. 수. 입.억.을. 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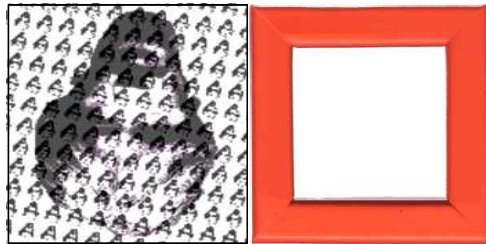
고.망...  
네.

11214321  
-1  
0

크.기...와...빠.크.기

" 새로 태어난 박테리아들 아무도 쫓지 않는다고  
한다면,  
36 시간에 박테리아는 우리들 종아리 높이만큼  
은 땅덩이 갱신을 된을 건이고,  
그로부터 한 때 뒤면 우리 키를 넘길 건이고,  
몇 달 지나면 이 땅덩이는 저 하늘 쪽으로 빛의  
바람기로 부풀어 나갈 건이다."

돌리-김



원안이 켜 온진경

최.재.천. 교.수의. 그. 생.물.들.도. 쫓.음.을. 애.도.하.다.에서  
생.물.학.자. 로.베.트. 마.사.르.텔.의. 그.을. 다시. 따.올.길

11214321  
-1  
0

단.말...: 한.쪽.에. 한.쪽.씩. 몸.이. 나.뉘.며. 자.라.나.는  
박.테.리.아.들.이. 있.다.

ㄷ : 새로운 지그

43338.04.04 에. 우리. 날말로만. 고쳐보

ㄷ : 새롭이 다가가기

새로이

작은. 알갱이. 하나. 하나가. . . . . 움직이는. 이슬. 깃털에  
. 비친. 그림. 처럼. 나타나는. . . . . 뭉개. . . .  
격려한. 길을. 생각해. 내게되었고. . . . . 격려. 스. 강을  
만들며. 찾고. 일한다. . . . .

오늘날에. 스이는. 선택이나. 언장들은. 사라지고. . . . .

손가락. . . . . 땅매인. . . . . 손바닥. . . . . 그. 스스로서. . . . .  
뜻을. 받아. 넘는. 날이. 되고. . . . .  
눈알. . . . . 빛나는. . . . . 눈빛들. . . . . 그. 스스로서. . . . . 빛을.  
내며. 뜻을. 알리는. 언장이. 되는. 길도. . . . . 어려운. 일  
. 아니다. . . . .

아. . . . . 텅. . . . . 다. . . . . 운. . . . . 꺾. . . . . 으. . . . . 료. . . . .  
. . . . . 일. . . . . 테. . . . . 지

고말. 소

네.

. . . . .

기리.igital...  
-1  
0

새로이

일자. 하나. 하나가. . . . . 움직이는. 애타. 화면. 언장을  
. 하는. . . . . 인쇄. 뭉개. . . . . 그. 개념이. 정리되었고. . . . .  
. . . . . 재료를. 개발하고. 일한다. . . . .

오늘날에. 스이는. 전자. 장비들은. 사라지고. . . . .

손가락. . . . . 땅매인. . . . . 손바닥. . . . . 그. 스스로서. . . . .  
일련. 자판이. 되고. . . . .  
눈동자. . . . . 빛나는. . . . . 눈빛들. . . . . 그. 스스로서. . . . .  
출력. 장치가. 되는. 길도. . . . . 어려운. 일. 아니다. . . . .

아. . . . . 텅. . . . . 다. . . . . 운. . . . . 꺾. . . . . 으. . . . . 료. . . . .  
. . . . . 일. . . . . 테. . . . . 지

고말. 소

네.

기리.igital...  
-1  
0

역사

30. 배. 한. 지. 크. 고. 산. 이. 사. 지. 재

아들과 함께... 세느 강가. 엔첸가게. 길음. 오래. 길  
었다...

거진...

아메리카,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날아가다. 하  
여...

닐. 암스特朗. 이라는. 아메리카. 군인이. 달에. 첫발을.  
내렸다. 하여...

아래는... 30년. 앞. 거진... 그. 바로. 뒤. 거의. 1년  
만. 다룬. 바리. 마치. 그. 친조이다...



"달... 역사로, 이뤄낸. 책..."

거진...

창으로... 어리신은... 이야기이다...

강물은... 흐르고... 우리의... 달도... 흐른다...

달말 :: 1969.년.7.월.16.일. >>>

.20.일.리일.구구구. 아메리카. 비행사. 암스特朗이  
.달에. 첫발을. 디뎠다. 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숨을. 췌었다...  
그. 때. 생중계. 방송이라는. 건. 안에. 닐. 암스  
特朗이. 내. 눈. 안에. 뚜렷하다...

그들의. 신조. 콜롬부스...

오백년전... 아메리카에. 도착하여... 그곳을... 인도  
라고. 부르고...

그. 때. 사냥. 사람들을... 인도사람. indian. 들  
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아직. 그렇게. 불려다...

오늘... 탁월. 달에. 던져. 보는데. 단. 돈은. 얼마일  
까...

1969년...

-1  
D

어리신...

좋은. 길을... 바라며... 빌. 때는... 일곱에...

웃음을... 띄우시고...

나쁜. 길을... 바라며... 빌. 때는... 바로... 길

길이... 만하오...

고맙. 습. 나...

네.



1,1	(>_<)	:~-(	!:-1	('n')	:~11	e'1	<~_~>
~_~	~_~	:~-(	:~...	'~_~'	(:~...	!:-1	◎◎
1,1	~_~	:~(~~	:~<	('e')	::(	e'\	e_e
'_'	'_'	:~(	>:-~	-/_-	:)	\	! , !
('')	~:-(-	:<	~_~	(>_<)	:~-(	!:-1	(+),(-)
~_~	~_~:-~	:~\	1,1	~_~	:~-(	:~...	~_~
1,1	~_~!	(:~\	'_'	~_~	:~(~~	:~<	(e)(e)
1,1	>:-e	):-:	('')	'_'	:~-(	>:-~	(e)(e)
:::	~(	~(-	~_~	~:-(-	:<	(e,e)	e,e
:_:	:(	:~e	1,1	~_~:-~	:~\	<^_>	+,+
1,1	>~<	:~e	1,1	~_~!	(:~\	(e_e)	(+_+)
~_~	:~e	e'!	1,1	>:-e	):-:	(e,e)	<+_+>
q.p	<:-(-	'!	:::	~(	~(-	(?:?)	(!_!)
('')	<:-e	e''	:_:	:(	:~e	?e?	e_e
'e'	:~1	''	1,1	>~<	:~e	e_e	'e'
('n')	:~11	e'1	~_~	:~e	e'!	^_~::	^~:
'~_~'	(:~...	!:-1	q.p	<:-(-	'!	^^::	('n')
('e')	::(	e'\	('')	<:-e	e''	~_~A	'~_~'
-/_-	:)	\	'e'	:~1	''	(~_~)	('e')

<=-0	==:-()	:-0	'!	<_>	(_)	!0	!
0-x	!:-0	':-)	o'''	x,x	(==)=)	:0	!-1
oo-	<(1-0	<:-0	o'!	==,=	-,-	:-o	!-(
0-1	:-e	!-(	'!	)!-1	-,-	:-o)	!
:-o	!->	:-)	o\'	(!_!)	<-,->	!-o	:/)
==o	!_	:-1	\	==,=	<-_->	!-o	!
==-<>	:-e	==0-0	!^u	-o-	(-,-)!	(==)	!-o
==o	==0-a	:-c	!^r	oo~	-,-!!	o'u	
==^v	<:-e	:-/	(>_<)	oo~	'o'	'u	

1624...  
-1  
0

아 개이 하나 하나 크. 은 지안 수.  
 이 는 수 세

0  
 +  
 ㅍ  
 -

엔생각... 그러나... 어제... 여러 알링티들이  
 같자기 함께 다룬 이야기...

0  
 1  
 2  
 3  
 4

몽 안에서 만들어지는 요소가 정보를 읽고 풀이하는  
 생트 역할을 한다.

0  
 1  
 2  
 3  
 4

생트 스스로 모두 분자 일개로 이루어져 살아있는 몽  
 안에 정보를 바라는 대로 넘어두거나 나누어 주게  
 된다.

0  
 1  
 2  
 3  
 4

생트 1조개를 이어도 몽방울 하나 크기로 깎마다  
 10 억번 움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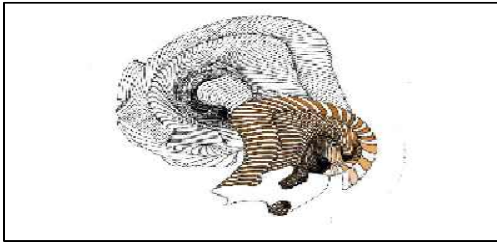
0  
 1  
 2  
 3  
 4

분자 하나가 생할 때 쓰이는 힘은 1백억분의  
 와트에 못미친다.

0  
 1  
 2  
 3  
 4

사람 몽 속을 돌아다니며 세포들을 다룬 작은  
 수레를 움직이게 된다.

0  
 1  
 2  
 3  
 4



0  
 1  
 2  
 3  
 4

우리는 이런 생트를 움직여 만들 수 있는 거리의  
 크기와 그에 따른 쓰임새를 먼저 밝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리...  
 -1  
 0

하늘이 . 밝은 . 것 . 것 .  
하하하



1121  
-1  
0

가장 밝은 하늘 사이  
0.1.2.3.4.5.

L  
T  
L  
1  
+ r  
^  
+  
L  
^r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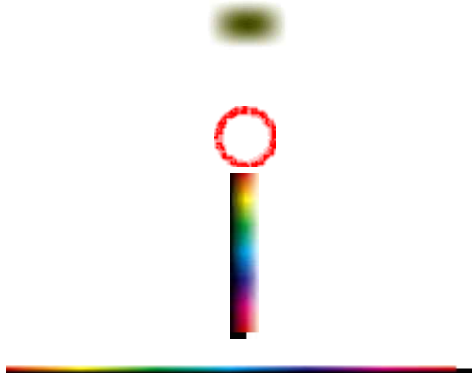
1121  
-1  
0

Every light is a shade, compared to the higher lights, till you come to the sun; and every shade is a light, compared to the deeper shades, till you come to the night.

10  
19

1/ 1/ 1/ ...  
1121000100.2002... John Ruskin  
-1  
0

1 2 3 4 5  
1 . . 1 . 1 .



1121  
-1  
0

나는 휘어진. 바닷길은. 만드어.  
쓰 해다

voire email marche  
bi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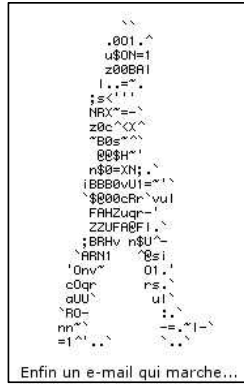
나는. 휘어진. 바닷길은. 가지고. 노다 ...

기  
러  
기  
노  
하  
노  
노  
노



다

.g



이런. 바닷은. 위. 경 비들의. 먼지. 노이. 마당이. 된  
다

post ... 644 5440444444

기리 ...  
-1  
0

어 재 어 으 잔 아 스

단말. 1: 이 생각을 돈 버는데 쓰려면 나에게 묻고  
쓰거나 내게 문화상품권을 알맞게 보내 주어야 한다

이. 땅덩이에서. 반응. 수. 이. 가장. 길. 이. 일. 매. 는. 뉘. 의. 머리. 로. 보. 내. 겠. 다. ...

채널이나 놓음은 물론이고, 전생상환판에  
적용하는 것도 저작권은 나 김씨에게 있는  
셈이다

단말. 2: 비겁하게 싸우지 말라

기리...  
-1  
0



아 누 . 리 다

ㅁ/ㅁ ㅏ

ㅁ  
ㅏ

ㅁ

ㅏ

ㅏㅏㅏ

ㅏ

ㅏ

ㅏㅏ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

ㅏㅏㅏ

ㅏ

ㅏ

나

오 다

조은. 땅덩이. 솟아도. 길 잃어. 빈. 굶이. 있다...

길 잃는. 굶이라도...

손. 안에... 달아. 볼. 수. 있다...

부다의... 키가... 길 잃어... 자라나... 여려.

온조. 한뼘바르기를... 넘어섰을. 때가... 언제인가


...구구구

부다의... 키가... 길 잃어... 자라나... 여려. 온

조은. 한뼘바르기를... 넘어섰을. 때가... 언제인가.

..구구구

.

ㅏㅏㅏ  바르위는 가장바르거나온부러

ㅏ

ㅏ





4330.03.28 18:15

반 나 누 어 스 가  
쥬 . 누 . 어 . 스 . 가

나는 . 경자로 . 실기당으로 . 보이게 . 하려고 . 빛을 . 쓰기도 .  
안다



기리  
-1  
0

4330.03.28 19:00

반 나 누 어 보 가  
쥬 . 누 . 어 . 보 . 가

안 . 과 . 빛

눈 . 안에 . 있는 . 경자로 . 본다



눈 . 안에 . 눈 . 빛보다 . 훨씬 . 많은 . 경자가 . 있다

기리  
-1  
0

4330.03.31 11:39

눈 이 가 아 너 이  
눈 . 이 . 가 . 아 . 너 . 이

또  
건  
빛과  
마음  
사이  
빈  
난다

기리  
-1  
0

해

4330.04.15.14:51

다 해가 ~ 해

해는. 아직. 저쪽으로. 일다  
 네. 눈도.  
 이  
 땅  
 덩  
 이처럼.  
 아직.  
 스스로.  
 길 어둡게는.  
 빙글.  
 저니고.  
 일다

2121  
 -1  
 0



조 . 다

땅덩이 가운데로 당기는 빙글이 오는 곳에서 오는  
 쪽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말이 터지듯 한 창밖에 퍼져 나가는 빙글, 그  
 퍼진 그 스스로를 하나의 쪽으로 여길 수 있을까

때를 내놓을 수 없듯이 길이나 크기를 잴 수 있는  
 곳도 나타나지 않는다

가운데가 일다

기리터사터  
 -1  
 0

4330.05.28 16:54

눈 . 보 기

이 리 기 리 기  
- - +  
0

우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것과 나  
사이에 매 뜻을 보고 있는 것이다



기리  
-1  
0

4330.05.28 16:55

빠른 기는 ...

때는 ... 또 바로 지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빠르게, 앞으로, 나가면, 다가와, 기와, 우리, 있  
은, 빙글, 돌며, 달아나다



기리  
-1  
0

4330.05.29 20:38

해 ... 자 . 별 것

빛박이(사진)라 해에서 떨어진 타 만한 조 빛이  
이리 저리 되비쳐 바 늘 구 멍으로 들어가 멍추  
경의 자이다

따라서 밖고 밖아 하얀 해를 바로 찍어 보는  
것은 큰 뜻이 있다

해를 찍을 수 있다.



가장 비 똥 어지고 튼 경은 별 사진이다.

기리  
-1  
0

달말 : 별 것 이다

4330.06.09 18:52

마음. 너. 보.는. 재

두꺼운 책을 펼쳐서 빛바랜 틈로 배길 때 쪽과 쪽 사이가 질어지며 글과 그림이 휘어져 나온다.

그 휘어진 모양은 틀린 것이 아니다



공부 / 스승 / 4330

판판한 윗글을 눈으로 삼고 읽는 틈의 맑은 눈빛으로 바르게 빛아 내 것이다

...  
...  
...

그러나 글은 빈틈을 바탕으로 찢어내 빛바랜 그림은 모두 틀린 것이다

우리의 눈 안쪽 모든 것이 휘어져 있다

기리ErsperadiE is miradiE  
-1  
0

4330.06.09 18:59

바리아 이.는. 한.곳.의. 지.은  
막.자.하  
~ ~

1979.02.02 에 나는 '한곳의 지은  
먼질비드'이란 먼질 잔치 때문에 바리아  
내렸는데,  
건은 먼의 바다라고 알려진 바리를 돌리보기에  
좋은 말미가 되었다.  
것은만 하여도 다른 나라로 나들이 가는 건은  
나란이처럼 따져 들어주지 않으면 어렵다.  
다른 느낌으로 더 배우기를 바라던 나는 그 나들이를  
향되어 보낼 수 없다.  
먼질 잔치를 마치고 나는 베를린과 빈, 런던,  
런타, 아테네, 앙스테르담 등을 유럽의 큰 고도들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소리쳤다 "바리아. 내가 더  
배워야할 배우기는. 바리아"

바리아, 그 고을 가운데 크게 기림만한 앵날 먼질  
잔과 그에 딸린 큰 책 잔이 새로이 열렸는데,  
뽕뽕두 가운 잔이라고 불리는 이 잔은 온전한  
실기덩이처럼 새로운 솜뚝을 지니고 새운 잔이었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온 나그네로 이곳 바리아의  
배움터 선비가 되기에 앞서 몇 달 머물러 있을  
때,  
경당지와 같은 이 책잔에 거의 날마다 들렀다.

온가 경당들  
온가 책들  
온가 온전한 경당들  
온가 소리날들  
온가 마당날들

그리고 경건 볼거리들보다 더 좋은 건은 책잔 안에  
있는 경건한 건들을 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보기를 들며, 모든 길상이나 공부상이 한 자리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pi$  사람이 스스로 올길 수 있고 마루  
바닥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빈개 줄 굵이  
뚝뚝이 여기저기 있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노래를 골라 들으며 책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춤추며 책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집 책꽂이에 있던 책들을 뽕아 보다가  
베개 삼아 바다에 누워 쉬며 장이 든다 해도 아무도  
탄하지 않는다.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를 일여지 않고 그  
베개 이렇듯 쪼저에 살짝 진이든다.  
그런 온갖 느낌이 지닐 수 있는 마음  $\pi$  사람이  
나를 바리에 있는 배우터에서 배우도록 떠민  
것이다.



...

그래서 나는 바리에 있는 경과 만질 배우터들  
몇 곳을 찾아가다.  
바리에 있는 거의 모든 배우터들은 그 크기가  
작았다.

길모퉁이 배우터는 종교 작아서 것을 둘러보는  
나의 힘을 뺏아 배우터 안에 갇힌 것들은  
알차면서 부드럽고 만졌다.  
내가 문을 두드리면 큰 배우터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arts appliquees et  
des metiers d'art 도 넘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바탕걸을 지니고 있었고, 일하는 방에는  
100가지가 넘는 망치들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배우고 싶다는 뜻을 곧바로 내었고,  
셀 수 없이 만진 망치질들을 배우게 되었다.

손씨가 늦게 되면 어려운 일도 쉬워지듯이, 여러  
가지를 해보고 바로 것이 본 나의 상은 더  
마음대로 헤쳐 나갈 수 있게 된다.  
한걸음씩 내 망치질은 더 자르고, 바리의 상도  
잘 알게 되었다.  
누구나 함께 쓰는 커다란 책 집에서 손에 책을  
들고 홀로 춤추는 사람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나는 오래도록 힘을 다하여 공부했다.  
그리고 배우터에서 외를 다루는 일을 두애가 다  
되도록 배워 마칠 즈음 어느 날,  
나는 쇠 한쪽과 망치 하나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느꼈다.  
이러한 느낌은 마치 내가 서툰 터에서 하늘 아래  
엮이 된 농처럼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다.  
그러나 한 때도 되지 않는 바로 뒤 다른 나라에서  
홀로 공부하며 엮이 되었다는 자랑스러운 생각은  
무니져 내렸다.

다룬 길은 많이 있었지만, 손씨는 일을 하는  
데 쓰이고 있어야 할 손대이지 그 알맹이는 아니다.

새로운 지어 만들려면 손씨가 있어야 하나,  
손씨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군

기쁨은 너무 짧았다.  
나는 손씨를 키워 인연하고 배우터에서 있는 힘을

다 쓰며 잊었다.

그런데, 나는 젊은 때를 왜 이렇게 바보처럼 보냈던가 하고 스스로 묻어 본 것이다.

나는 보통이 닳도록 수렁에 빠진 듯 했다. 배우거나 가르침이 없어도 잊혀 갈 수 있는 건물이 있다는 걸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

그 때 나는 배운 터에서 잊히고 하던 일을 멈추었으나 두배나 다니 배운 터 안 밖지에서 어느 때처럼 지내는 때였다.

그 때 놀라운 일은 여섯 달 내내 같은 밤 차림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 떠올랐다. 생각해 보면 나는 배운 터에서 해마다 200가지도 넘는 진지를 받아본 셈이다.

처음에는 만이나 밤 민을 알 겨를도 없이 그저 일할 힘을 얻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 많은 먹은 거리를 나도 모르게 즐긴 셈이다.

길내, 나는 만 차림도, 스승들의 문가정도, 모임을 만드느 것도, 배우들이 지닌 생각들도 서로 나누며 배운 셈이다.

서운로 떠나기에 앞서 바리에 있는 한 먼질비 내가 했던 생각:

1981 해 프랑스 나라님을 뽐는 일은 누구도 미리 알아차릴 수 없이 서로 언비스하였다. 앞서 있는 두 사람은 그 때 나라님 지스카르 데스탱 giscard d'estain과 바로 맞서고 있는 프랑스와 미테랑 Francois mitterrand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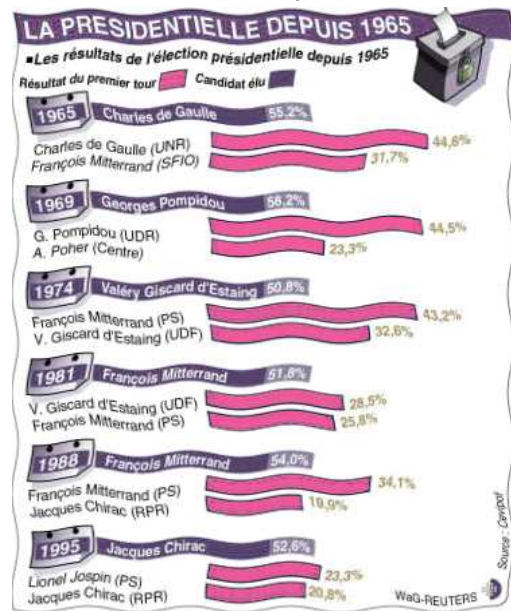
천 겨루기에서 지스카르 데스탱이 이겼다. 그러나 이래 뒤, 마지막 두재 겨루기에서는 프랑스와 미테랑이 이겼다.

나라님 뽐기는 아름 경과 먼질을 생각하면 매우

따져볼 만한 일 이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때 나라님이 하던 일은 사랑들의 민과 아름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 때 나라님 지스카르 데스탱은 인플레이셔니스트 처럼 액 차림을 하고 있었고, 막선이 프랑스와 미테랑은 알려지지 않은 경비인 셈이나,

그 때는 레알리즘 위의 레알리즘 처럼 네오 레알리즘이 새로이 태어날 때였다.



지스카르 데스탱 바로 먼저 나라님이었던 조르즈 뽐비두, 그는 온진 경비 이었다. 조르즈 뽐비두가 나라님이 일 때 일귀 마려한 뽐비두 가운짐을 보라, 그 곳 각임새를 돌리보라.

이는 지스카르 데스탱이 프랑스의 아름민 문경을 인플레이셔니즘 때로 되돌린다는 걸을 말해주기도 한다.

알려지지 않은 경비는 윈조로 치우친 무리에 팔려 나타나신 사랑이다.

나는 경비 또는 먼질비로서 누구를 먼 경 처럼

그라 뵈야야 하는 가 구

그라야 하는 이래 사이 좋군 나는 인프레이션니스트  
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레알리스트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런 민중비의 생각과 소문으로 이래 뒤  
어떻게 일을 기치며 다시 새로이 뵈리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어제든 나라니이 이래 뒤에 다시 새로이 바뀌었다.

그 때에 새로이 넘어서는 레알리즘 문명이 아름 먼  
마당에 퍼졌고,  
나는 그 이래 안에 짙은 경비들의 생각이 일을  
기치 길로 나갔다.

마침내 나라 다스리는 일을 쉬운 생각으로 따져보아  
밀며 뵈운 것이다.

프랑스 나라니, 프랑스와 미테랑은 14 해나  
지나도록 민중비나 경비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바리 바트 커다란 문과 아직 진고 있는  
새 나라 채 짐치런 민중을 이루었다.  
이것들은 미니말 다음 길들이다.

조르주 뵈베르는 온진 경비이다.  
지스카르 데스탱은 친 무런 인프레이션니스트이다.  
프랑스와 미테랑은 레알리스트 이었고, 그는 미니말  
다음 민중비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새 나라니 자진 시략 jacques chiraac 은

내가 바라는 바를 들이줄 수 있을 가 구

나는 앗날의 프랑스가 빈개 경 안을 창상처럼  
다들 잘 아는 마음으로 저니 나라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앗날의 프랑스 나라 일들만이 아니라,  
땅굴 속을 달리는 줄수레 안에서 총추자는 허름한  
아낙네 말을 들이주는 얼린 마음도 알게 되었다.

나와 함께 배우고, 나를 바라보며 총추라.

...  
...  
...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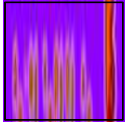
...

거리  
-1  
0

덧말: 10 해 안에 일들로서 먼저 쉰 나의  
일을 10 해 뒤 우리말로 옮겨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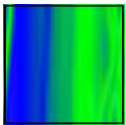
내가 . 반은 . 쓰 는 . 파 단

한 . 빛을 . 보지 . 못 하게 . 하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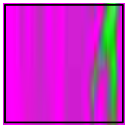
1

동 . .. 경의 자를 . 동 보게 . 하려고



2

색 . ... 빛을 . 보게 . 하려고



3



기리  
-1  
0

경의 : 원반경, 공부리, 공동경

기리  
-1  
0



보 기

방하늘

거울을 거울에 비취 본다고 할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생각하자



우리 ... 이 방 안에 보이는 모습들은 또 바로  
같은 것이 아니라 위어진 것이다

무언가로 보려는가

아름다운 별들

무언가로 인제를 보려나

별하늘 ... 너는 알리랴

고맙

네

기리리

- 1

0

땅.무.개.항

가운 데로, 당기는, 땅, 힘이, 미치지, 못하느, 밖에서, 사  
랑이, 태어난다면, 무리는, 동근, 귀슬, 안, 쫓음, 기어다  
니거나, 거꾸로, 날아, 다닐, 것이다

방, 바닥이, 위어진다

위로, 내려가고, ... 아래로, 올라간다

기리리

- 1

0

43330...1997.05.29 20:38

보 나 애 개

보  
나

절하며...

나는, 새가, 어떻게, 나는, 지, 알, 수, 일다...

껴나...

내, 눈은, 새의, 날개진음, 따라, 휘어, 돈다...

나는, 방, 하늘을, 둥글고, 닮게, 본다...

사라졌음, 길, 인이, 먼, 벌음, 바로, 그들, 곁에, 두고,  
보기도, 한다...

이제, 나온, 달, 바로, 곁에... 셀, 수, 인이, 지난, 해,

안에, 사라진, 벌음, 곁에, 두고, 보는, 건이다...

둥글고, 맑은, 것, 소리로, 사라진, 파란, 벌음, 그려,  
담아, 둔다...

보나

나는, 새는, 내, 뜻조로, 휘어, 돌며, 날다...

과망...

네,



기리  
- 1  
0

43336/05/13(17:04)

기 리 . 아 애 . 서 서

하  
치  
안  
너는  
마르셀, 뒤상  
이다

새  
치  
안  
너는  
이, 옹고  
이다

아흐  
치  
안  
너는  
새종이다

스무  
일곱  
치  
안  
너는  
레와날도, 다, 빈치  
이다

미  
안  
너는  
기, 부리  
다  
기, 부리  
나는

18

광.소  
내



가리  
-1  
0

# 공 . 화 . 실

나의 손으로가 아니라 내 머리 손, 나의 꿈이 스스로  
경험을 겪고 만질도 할 수 있는 날이 올테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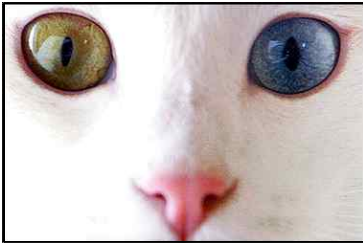
상  
상  
도  
  
이  
미  
  
알  
못  
과  
  
느  
낌  
을  
  
주  
고  
받  
는  
  
생  
들  
의  
  
생  
이  
다

가리  
-1  
0

단말: 경비  
paintre, 畫家, painter, колеривщик  
... 만질비  
sculpteur, 彫刻家, sculptor

보 고 서 . 자 기

우리는. 촬영. 빠르게. 보고. 있는. 건인가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임. 본다  
우리는. 보고. 또. 본다.



무언을. 보는가

기리 4330 . 03 . 24 . 11 : 35  
-1  
0

빛박이 : 무스타파 오제

경의자 . 문음

경의자

경의자는. 무엇에. 가깝나 구구구



경의자

빛박이 фотоснимок, 寫眞, photograph ㄱ

빛경의 отражение, 映像, reflection ㄱ

공경의 изображение, 心像, image ㄱ

참모습 реально, 實相, reality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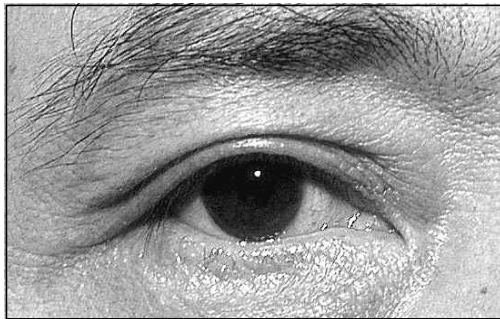
경의자

가장. 다알다고. 여기는. 건. 하나를. 뵈어서. 그. 사이.  
일개를. 뵈어. 보라

기리 4330 . 03 . 25 . 17 : 33  
-1  
0

나 누 어 . 보 기

사랑은. 눈만으로도. 빠르게. 그. 움직임을. 나누어보지. 못  
한다



빛박이 : 곽공신

움직 . . .

기리 4330 . 04 . 15 . 14 : 45  
-1  
0

해는. 아직. 저쪽으로. 지고 있다

생 . 해 . 보 . 기

님이름. 빠르게  
바뀌게됨. 님이로. 따져. 생각한다. 튼튼하다고. 할. 수. 있  
다

님이도. 기 인 연이. 훌리. 가고  
바뀌게도. 기 연이. 님고. 길다

빛 빠르게  
니와  
나  
사이름  
따져  
본  
다

고양. 소  
네

1421 . 43300411.18:04  
b

? 으 리. 지 으 리. 바

크레도

맛는  
같이  
있다면

튼튼. 진열. 바르게. 보았. 하는. 길이다



내  
눈도  
아직  
스스로  
무게됨 레 重力場  
지니고있다

1421 4330 . 04 . 15 . 14 : 45  
-1  
0



7621.4330.04.15.15:02  
- 1  
0

우리는. 이미. 빛보다. 빠른. 꿈. 숲에. 살고. 있다

자자자

7621.4330.05.21.19:15  
- 1  
0

오늘. 지프. 2009.07.19

Weather 81/59 Becoming partly cloudy /A2

LIFE & TIMES County fairs branch out /C1

Deal of the Day /A3

# Carroll County Times

www.carrollcountytimes.com \$1.00

Sunday, July 19, 2009

## Did we really land on the moon?

By Benson Olson  
Lantern Press

The Apollo-related history, especially at noon Wednesday with general Michael Smith's discovery the Space Shuttle orbiter was in space late space.

While standing in front of the Space Museum's Lunar Module, Landon said he didn't see a sign of the American population believes the moon mission never happened.

Landon referenced a 1999 study poll in which 60 percent of the public said they believe the U.S. government staged or faked the moon landing.

Photo: Tom Moon, AP

## Fallen Vietnam soldiers honored

Members of Black Horse Regiment pay tribute to comrades

By Renee Jacobs  
Sunrise News

Some remembered him as a quiet, young man, others remember him as a quiet leader.

The most remembered though was "Black Horse" because it was a strong and fearless person who gave up his life for his country during the Vietnam War.

About 100 people, some from other parts of the nation, attended a service and memorial service to remember Joseph Ricketts and his fellow soldiers who died in Vietnam. They also honored other fallen soldiers from the 10th Airborne Cavalry Regiment, the company's 10th anniversary Saturday in Westminster.

The ceremony took place at the Vietnam War Memorial at Willis and South Street streets, to remember and honor fallen soldiers who served in the war, including Ricketts and others.

The event also marked the 25th anniversary of the war, commonly referred to as the Black Horse Regiment.

The unit got its name from riding Black mules during a deployment in Cuba in the cold region of Joseph Ricketts.

During the Vietnam War, troops in this unit would gather intelligence, scout, long-range reconnaissance and other missions.

These missions took place in the line of control for the Black Horse Regiment.

Photo: Tom Moon, AP

## TODAY IN THE TIMES

NC graduate not giving up  
Tim Wunderlich continues to train in hopes of qualifying for the Olympic trials. C1

Group wants to expand  
The County Humane Society is seeking to add a spay and neuter clinic. A9

INSIDE Pages A6-7  
■ Remembering the moon landing  
■ Estimated cost of in-space travel  
■ Notable events in NASA history  
ONLINE VIDEO  
A visit to the Air and Space Museum  
www.carrollcountytimes.com

INSIDE ©2009 Carroll County Times  
Classified A3  
Life & Times C2-C3  
Letters A2  
A5  
Obituaries A3  
Opinions A6  
Puzzles A4, 6  
Sports B1-B10  
Westminster, Maryland

가슴아이 . 두 가지 . 가슴아이

마흔 해. 앓. 아폴로와. 앙스트롱이라는. 아메리카. 사람이  
 . 달에. 내리다는. 건을. 집에서. 밀리볼트로. 보았다  
 그. 때. 거문. 거문한. 달. 위에. 내리도록. 한. 사람들음.  
 우리러. 보며. 놓란. 내. 가슴음. 어루마친다  
 내. 어린. 눈. 에. 아메리카라는. 나라가. 지니. 앉신. 손  
 씨와. 많은. 돈이. 부러웠고.  
 나는. 밋음. 거리도. 모자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음  
 에. 나옴로. 탄하고. 옴로. 하소연. 하였다  
 그. 때. 느낀. 하소연과. 함께. 사람들이. 달에. 내리다  
 는. 계보으로. 어린. 내. 가슴이. 갓. 아려다

그러나

나는. 그. 때. 그. 사람이. 달에. 내리지. 앓았다고. 생각  
 한다  
 이러한. 내. 생각은. 스무해째. 되었다  
 그. 즈음. 가까운. 몇. 사랑게. 내. 생각음. 슬. 거머. 이야기  
 . 해보았는데. 날. 미치거나. 엉뚱한. 눈으로. 바라보다  
 가장. 큰. 나라와. 아직. 까지도. 가장. 앉신. 나사라는. 무  
 리를. 나보다. 더. 믿고. 믿음.이. 트림이. 없다  
 나는. 어린. 내. 아이들. 계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못  
 했다

그래도. 나는. 외젠도트. 스무해가. 넘도록. 내. 생각이. 막  
 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어날. 갑자기. 내. 생각이. 옳다고. 한  
 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큰. 탕이. 터질. 지도. 모른. 다는. 그. 때. 내. 느낀음  
 . 지음. 수. 있었다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랑들. 게. 어떻게. 내. 생각음.  
 알리고. 밝혀야. 하는. 가. 하며. 가슴. 아이를. 크게. 치루어  
 다  
 몇. 날. 뒤. 그러한. 아픔.이. 사라질. 즈음. 부터. 나는. 내.

생각음. 천천히. 뿌려. 나갔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왜. 가짐. 술. 한. 모금. 뒤에. 해  
 왔는지. 배운. 이음은. 알. 테지. . .

고양. 소  
 네

기리  
 -1  
 0

오. 는 . 해. 나



달에. 가려지는. 해

. . . 다라다 . . . 다: 디표. . .

différence = 다랑 = 差同 < 差延  
 'différence' 와 'différence' 는 다르다

'différence' 는 프랑스 신비 작켓  
 델리다 jacques derrida가 스스로 만들어  
 새로이 쓴 낱말이다.

'différence' 디페랑스' 는 프랑스 말  
 'différence' 다음 '에서' 씨를 ' -rence' 를  
 ' -ance' 로 바꾸어서 만든 건으로,  
 델리다의 새로운 생각과 뜻을 알리려고 그 스스로

만든 낱말이다.  
 '다르다'라는 뜻과 '늦추다' '미루다'라는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는 낱말에 그 여러가지 뜻을 함께 뜻하는  
 낱말로 만든 새로운 이종서인 생어이다.  
 곧 'difference' 디페랑스는  
 움직여서 'differer' 디페레가 지닌 뜻이 함께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알맞게 우리나라 말로 새로이 만든다면 ...  
 '다라다' '다랑' 등으로 만들어 쓸 수 있겠다.  
 'difference' 디페랑스를 알려줄 때 한 젊은  
 신비 부근가도 이렇게 쓴다고 들은 듯 하다.  
 나쁜 日本 신비들은 '差延'이라는 낱말을  
 만들어 끔찍한 뜻으로 쓴다.  
 동권 中國 신비들은 알았을 '差同'이라는 낱말을  
 보여 그런 뜻으로 쓰다만 쉽게 알게 되겠다.

앞에 쓴 difference  
 뒤에 쓴 difference  
 이들은 같기도 하나 이미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귀나 그랜드 사랑이 쓰는 difference  
 교란세 사랑이 쓰는 difference  
 이 두가지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이러한 다른 뜻을 지닌 새로운 낱말로  
 'difference'를 만든 생어니 나와 나는  
 다라다.  
 어제의 나와 오늘이 나는 다라다.  
 '다랑'이라고 쓰거나 '다라다' 새 움직여서  
 말한다면 어떨이들도 뛰어난 신비 델리타의 말  
 뜻과 그 낱말에 쉽게 다가갈 들을 수 있으리라

고양.소  
 네

기리 difference . . .  
 -1  
 0

단글1; 위에 쓴 는 는 는 에 라다라 이

익는 교란생어 보면 됨  
 단글1; 이 글은 동권 中國에서 와 날 배운  
 신비들에게 가르쳐서 쓴 글이다.  
 따라서 '差同'이라는 낱말은 내가 동권  
 사람들에게 만들어 준 생어이다.

깃 . 끼지 . 깃

뜻 같은. 깃질이라도. 깃에. 둘러싸여. 익는. 깃의. 끼  
 와. 깃에. 따르. 느낀은. 다르다  
 뜻 같은. 강으로. 만든. 작은공과. 큰공을. 눈공과. 더듬어  
 . 보다면. 그. 끼기. 만이. 아니라. 손에. 닿는. 그. 깃질이  
 . 지닌. 느낀도. 사뭇. 다르다

뜻 같은. 닭이. 낳은. 닭같은. 깃질이라고. 하더라도. 알  
 과. 뒤. 위. 아태의. 깃이. 서로. 다르다

다라다  
 창. 다르다  
 다라다

기리  
 -1  
 0





빠르 기로, 보느, 누 리

말타기름, 배우면, 좋은, 건들, 가운데, 하나는, "
웅진잉에, 따라, 그, 돌레가, 달리, 보인다 "느, 건이다
어찌인가, 밀리볼름에서, 그려한, 뜻으로, 이야기, 하는,
건음, 들었다

나도, 말타기름, 좋아한다
많은, 마구간, 안에, 있는, 건보다는, 좀, 웅진여야, 몽
에, 좀더고, 하니, 말에게, 크게, 미안하진, 않다

지난, 흥남, 발수레 를, 산다
그냥, 건음, 때와, 달리, 나의, 다리름, 웅진잉, 건과,
어찌, 바뀌기에, 따라, 돌레들이, 달리, 보이는, 줄거음의
. 일다

.
.
.

" 달리는, 말의, 다리는, 스무개이다 ", 보스 | 노니

.
.
.

기리 + gureumbi
-1
0

그냥, 인스지, 아진



기 ) 다빈, 쿠크펠델)아찌)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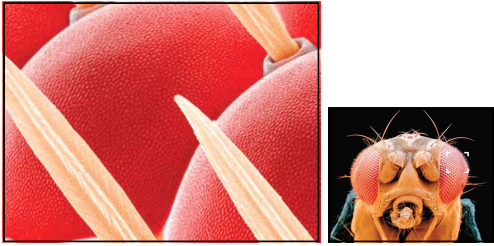
기리 + 창이랑, 기리

창민지, 창경이랑, 일다

美術에서, 純粹한, 이미, 날말한, 있는, 생이다

.
.
.

기리 + gureumbi
-1
0



은. 부. 리. 가. 새. 질. 때  
하. 는. 나. 은. 어. 어. 다  
은. 부. 리

은. 부. 리. 가. 터. 질. 을. 때. 하. 는. 나. 은. 어. 어. 야. 한. 것. 은. 아. 니. 다

하. 리 . 문 . 450 . 10

universe didn't need god to start  
big bang didn't need god

기 > 기원 > 부리

stephen haw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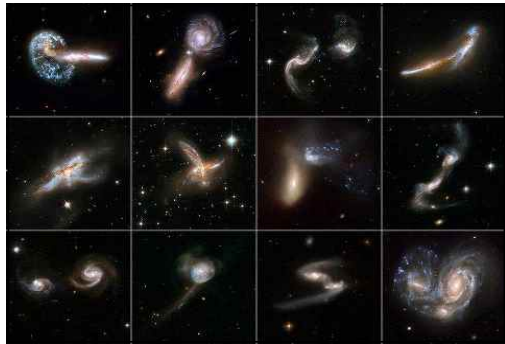
은. 어. 어. 해

기리 big bang  
-1  
0

마. 지. 고  
본. 다. 면

동. 보. 재. 조 . 문 . 별. 자. 지. 등

방. 아. 는  
별. 등.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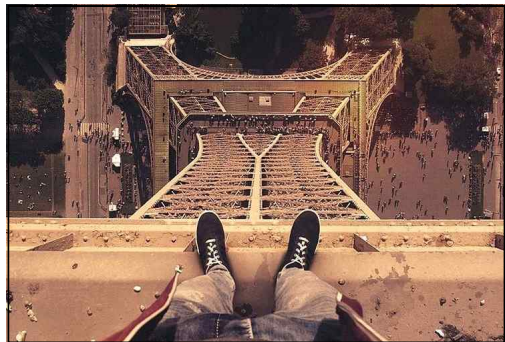


너. 와. 나  
우. 리. 가

만. 든. 것  
이. 략. 다

위. 에. 서 . 쥘. 어. 뵈

기. 리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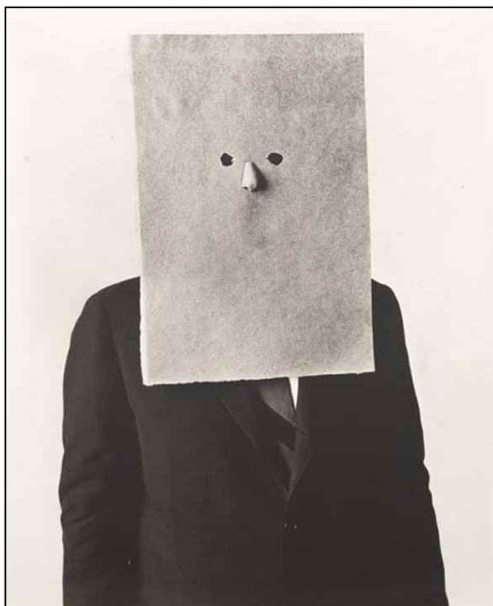




스 안제 ! ... 나사 ... 아사장 ...  
... ???



공 + 나사 + 공 > 부리



사 이 . 스텝 | 노 백 . 의 . 황 ... > 부리

1121  
-1  
0

















